[ BOX 1 ]

## 글로벌 공급망 왜곡 현황 및 전망*

□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총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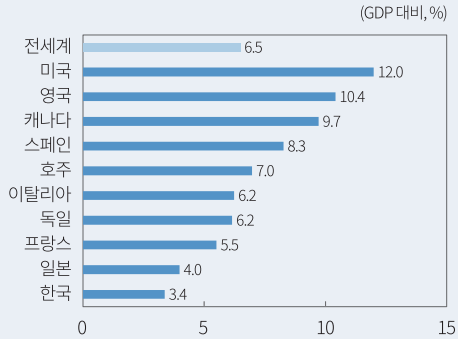
— 봉쇄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각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 등으로 전세계 가계저축액이 크게 증가하며 소비여력이 축적

- 팬데믹 이후 전세계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액은 5조 4,000억달러(2021년 1분기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세계 GDP의 6.5%에 해당[2)]
- 봉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많았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과 저축이 많은 것으로 분석

—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이연소비 수요가 가세하며 위축되었던 소비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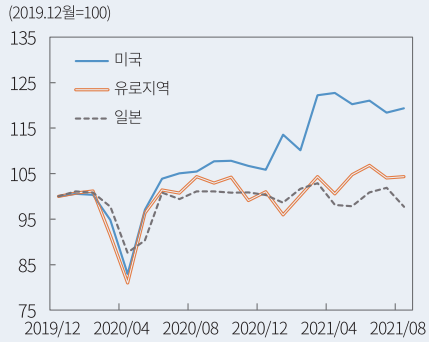
-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이전소득 공여, 누적된 가계저축, 백신 효과 기대 등을 바탕으로 이연소비가 크게 발현

〈그림 1〉 주요국 팬데믹 이후 초과 저축




주 : 1) 2021년 1분기말 기준
2) 2019년 소비패턴 대비 추가 저축
자료: Moody's

〈그림 2〉 주요국 소비 추이




주 : 1) 소매판매 기준
2) 2019년 12월 값을 100으로 환산
자료: FRED, Bloomberg

* 거시금융실 선임연구원 장효미(janghm@kc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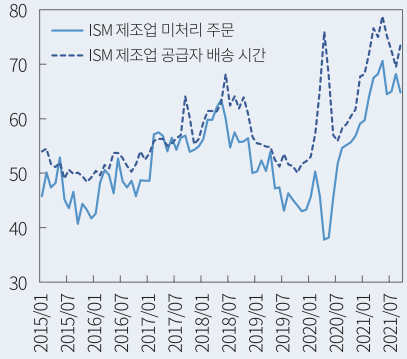
2) Moody's analytics, 2021.4.22, Weekly Market Outlook: Big Gains Ahead for the Economy.

□ 글로벌 경제의 총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망 왜곡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심화

— 자동차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및 공급 차질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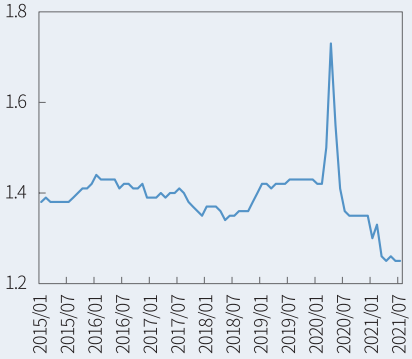
- 생산자가 고객 발주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은 미처리 주문이 증가하고 제품 공급이 지연되어 부족한 공급분을 재고 소진으로 충당
- 정보기술 기업 오라클이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가 공급 부족으로 특정 품목을 구매하지 못하고(60%),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51%)한 적이 있다고 응답[3)]

〈그림 3〉 미국 미처리 주문 및 공급자 배송 시간




자료: Bloomberg

〈그림 4〉 미국 기업 판매 대비 재고




자료: FRED

□ 특히 제조업의 핵심을 이루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이 확산

— 팬데믹 초기 경기 전반이 위축되면서 반도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생산 업체들이 주문을 축소하였으나 차량용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 그러나 반도체 산업 특성 상 신속한 공급 확대가 불가능해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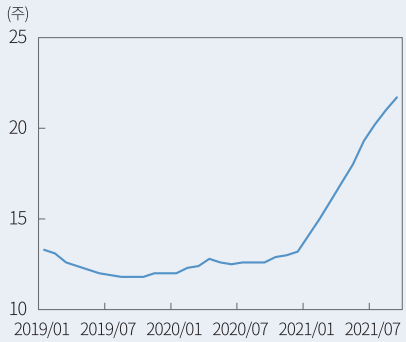
- 반도체 발주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업계 리드타임이 9개월 연속 증가 (2021년 1월 14.1주 → 9월 21.7주)

3) ORACLE, 2021.9.29, Survey: 82% of Americans Scared That Supply Chain Issues Will Ruin Their Life Plans.

—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동이 재중단되며 공급에 차질을 빚어 자동차 등의 제조사들도 감산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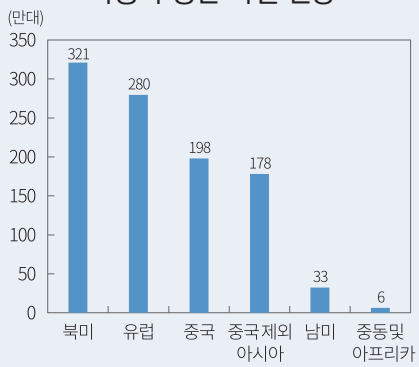
- 반도체 생산 전문 업체(파운드리)는 대만 22%, 한국 21%, 일본 16%, 중국 14%로 동아시아 지역이 전세계의 약 73%(2019년 기준)를 차지[4)]
- 글로벌 컨설팅 업체 Autoforecastsolutions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연간 자동차 생산 차질 대수는 1,015만대(2021.9월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1.5월 전망치(366만대) 대비 177% 증가[5)]

〈그림 5〉 반도체 리드타임




자료: Susquehanna Financial Group

〈그림 6〉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 전망




주 : 2021년 9월 전망 기준
자료: Autoforecastsolutions

□ 상품과 중간재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차질은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평가

—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노동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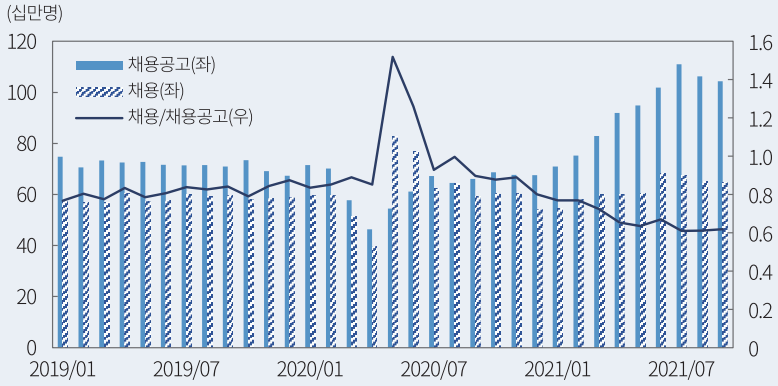
4) 국제금융센터, 2021.5.18,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및 향후 전망.

5) 유진투자증권, 2021.9.28,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과 가격지수.

6) Wall Street Journal, 2021.10.14, 4.3 million workers are missing. where did they go?
CNN, 2021.10.1, Time running out to save UK industry from worker shortages, say business leaders.
Forbes, 2021.5.18, Costs Crisis As Labor Shortage Emerges Behind Australia's Closed Border.
Reuters, 2021.6.8, Analysis: Remember me? With fast recovery, labour shortage haunts Eastern Europe.

- 미국의 사례로 살펴보면 2021년 들어서 채용공고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채용공고 대비 실제 고용은 하락 추세[7)]
- 전미자영업연맹(NFIB)의 2021년 5월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8%가 인력충원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준[8)]

〈그림 7〉 미국 채용공고 및 채용




자료: FRED

— 감염 우려로 인한 잠재취업자들의 구직 활동 회피, 교육 시설 폐쇄에 의한 아동 보육 부담, 관대한 실업 급여에 따른 구직 유인 하락 등으로 노동시장 정상화가 지연[9)]

— 생산 및 제조 관련 노동력뿐만 아니라 유통, 운송 등 산업 전반의 노동력 수급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업 단축 및 중단,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져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

□ 노동력 수급 제약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는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증가

— 노동력 부족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진행 중이며, 이는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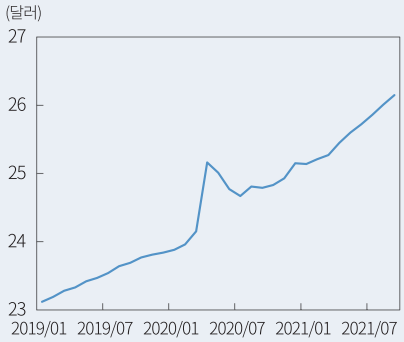
7) 김재칠, 2021.10, 미국 경제 및 인플레이션 향방과 연준의 대응,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9.

8) Reuters, 2021.6.4, Record-high number of U.S. small businesses can't fill job openings-NFIB.

9) Deloitte, 2021.8.23, The global labor shortage: how Covid-19 has changed the labor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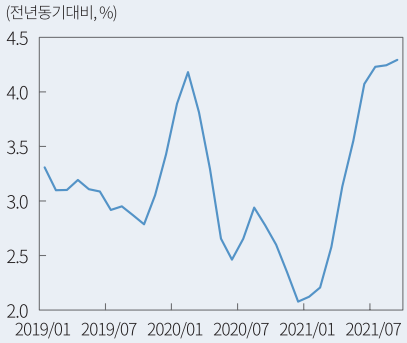
- 미국의 민간부문 생산직·비관리직 근로자의 2021년(1~9월) 시간당 임금은 평균 25.6달러로 2019년(평균 23.5달러) 대비 약 9% 상승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운송 및 창고업, 레저업에서 임금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분석
-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수요까지 가중되면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림 8〉 미국 민간부문 생산직·비관리직 임금




주 : 시간당 평균 임금
자료: FRED

〈그림 9〉 글로벌 물가상승률




자료: Bloomberg

□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며 점진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으나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개도국들의 경우 백신 확보 및 접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위기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10)]

-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경제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향후 12~18개월 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협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을 꼽았고, 20%가 노동력 부족을 지적
- 또한, 전체 응답자의 45%가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공급망 병목현상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10) Wall Street Journal, 2021.10.17, Supply-Chain Bottlenecks, Elevated Inflation to Last Well Into Next Year, Survey Find.